

관광객 유치 본격 가속화

도, 무안공항·군산항 연계 여행사관계자 캠프투어 실시

전북도는 무안공항과 군산항을 연계해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주 4회 운항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안공항 정기 노선 취항을 계기로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객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데 가속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3개 시·도와 제주항공이 공동 협업체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언론·여행사 관계자(18명) 대상으로 캠프투어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11일과 12일 고창읍성과 전주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황금과동육, 온천체험, 전주비빔밥 만들기, 한복 예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비빔밥 만들기와 남부시장의 청년물 방문, 한옥 숙박 체험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답사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캠프투어는 러시아인 가족 및 친구, 연인 등 단체를 타깃으로 주요 유명 관광 콘텐츠 위주의 답사로 진행하였으며, 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러시아 관광시장에 맞게 전라도 3개 시·도와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3일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석도-군산항을 이용한 중국 산둥성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남시 현지여행사와 산둥성수영운동협회 관계자(11명)를 대상으로 캠프투어를 진행했다.

산둥성 제남시 답사단은 13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았으며 광주와 전남도를 방문한 후 16일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간다.

도는 오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8월 마스터즈대회에 중국의 수영 동호회와 관광객들이 전북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여행업계에 적극적인 홍보와 상품개발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군산항을 통한 양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희욱 도 관광총괄과장은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성 지역은 하늘과 바닷길을 통해 외래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시장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을 전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위택스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전북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 743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억원(2.1%)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천대(1.3%)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5억원 부과되었다.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중에 연 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올해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증가금(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납부는 고

지서로 시중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공인)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현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 편리한 납부수단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도민이 납부해주시는 세금을 지역발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2020년 우리동네 야외운동기구 순환 지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동네 야외운동기구 순환 지도 사업'은 마을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증가에 따라 적절한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육공원, 둔치, 마을 공터, 아파트 단지, 도시공원 내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및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법 지도를 위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드론 띄워 농작물 재배정보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김현곤)이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정보 구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탠다.

공간정보연구원은 13일 강원 강릉시 안변데기에서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LX 관계자와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비행체 영상기반 농경지DB 구축 및 변동성 분석 연구' 현장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해 배추, 마늘, 양파 등 3대 작물의 재배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생산량 예측과 수급안정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하고 LX 공간정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

다. 시범대상지역은 3대 작물의 주산지인 강원도 강릉과 태백, 경남 함천, 전남 해남 등 총 5곳이다.

현재 공간정보연구원은 분사 국토정보본부, 강원본부, 강릉시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인 강릉 안변데기, 태백 귀네미와 매봉산 지역의 영상을 취득하고 있다.

현장세미나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업 혁신 방향, 영상정보 활용 관련 센서 및 비즈니스' 등 전문강연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영상촬영 시연회를 갖는 등 내외부 관계자들의 기술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미래 창업인 꿈꾸는 전북 스타창업가 발굴 나선다

창업꿈나무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전북도가 주관하고 전주대학교가 운영하는 '2019년 창업 꿈나무 사업과 지원사업'의 발대식이 13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은 전북도, 전주대학교 관계자 및 2019년 창업 꿈나무 사업과 지원사업 선정 동아리팀원 5명, 전북글로벌창업년배협의회 등 청년창업 유망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기업가정신교육, 창업 토크콘서트, 사업진행 오리엔테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창업 꿈나무 지원사업은 전북도의 유망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조기 발굴하고 미래의 스타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지원 및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등의 체계적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내 창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창업꿈나무 아이디어톤'을 진행하여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동아리 20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창업동아리는 3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활용하여 6개월 동안 시제품 제작, 자재권 취득, 전시회 견학 및 참가 등 다양한 창업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창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경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아이템 발굴에 필요한 교육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소비자반응 조사를 위한 포의 크라우드 펀딩, 시제품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우수 동아리를 선발하고, 글로벌 창업인재로서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미래의 스타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도내 창업생태계 조성의 발판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하라!

군산시의회,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경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날 결의문에서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 등 노브랜드 직영점 형태로 출점을 시도했지만, 지역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직영점 사업이 아닌 편법 폼수를 부려가며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입개시를 예고해 우리시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점 출점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부담비용을 51%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동네상권까지 싸움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미장점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이 골목상권 자원을 독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의회는 "빠듯한 살림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간 공생관계로 형성된 지역 상권을 시장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

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 왔다"며 "자유 시장 경제체제라 해도 골목상권을 몰락시키는 대형유통업체의 탐욕은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를 넘어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이마트는 영세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가맹점 개설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중소기업벤처기부부 소상공인 정책실, 전북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마트 노브랜드 본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송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